

#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에 한전 주가 신고가 경신

### 정부 지난 26일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2달새 주가 32% 상승 기업 가치 제고 요구...강제성 적용 될 경우 추가 반등 가능성도

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속에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주가가 연중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실적에서 지난해 하반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등 호재 속에 정부가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세부 기준에 ‘상장 공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항목을 추가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한전 외에도 주가 변동 폭이 크지 않던 에너지 공기업들의 주가가 치솟는

모양새다. 27일 증권가에 따르면 한전의 주가는 지난 26일 종가 기준 2만485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한전은 올해 첫 장이었던 지난 1월 2일 종가 기준 1만8840원에 거래됐었는데, 2달새 주가가 31.9% 뛰었다. 한전의 주가 상승 배경에는 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한국 기업의 가치가 주가 대비 저평가되는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제도로,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상장사가 최소 연 1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적극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마련 및 실행에 옮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장 지수와 투자상품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주가순자산 비율(PBR)이 1에 미치지 못하는 한전 등 공기업들의 가치 제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PBR은 주가를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난 주당순자산으로 나눠 배수로 표시할 수치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기존 PBR이 1에 미치지 못했던 저

PBR주가 주목받게 됐다. 지난 16일 기준 PBR이 0.39에 머물고 있는 한전 역시 ‘밸류업 테마주’로 인식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탄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한전이 지난해 하반기에 3·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한전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기대감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감동철 한전 사장이 최대 한도의 자사주 매입을 검토하는 등 한전이 기업 가치 제고에 적극 나선다는 점이 주가 상승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내놓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예상과는 달리, 각 상장사에 자율적으로 맡기게 되면서 상승세는 한 폭 꺾인 모양새다. 다만 오는 5월 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미나에서 결정될 세부지침이 공기업의 기업가치 제고에 어느

정도 강제성을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한전의 주가가 추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전 관계자는 “‘상장 공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항목은 재무-예산관리 부문에 포함된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타 항목이 2점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재무-예산관리 부문은 정부의 지침에 발맞춰 타 항목 대비 2배에 해당하는 4점이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오는 3월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방안 등 세부 지침을 논의 및 검토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전남 평균 저수율 85.3%...전남 농업용수 걱정 덜었다

### 배수 시설 가동 주기 탄력 운영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전남본부)는 27일 이날 기준 광주·전남지역 전체 저수지 1052곳의 평균 저수율이 85.3%로 평년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평균 저수율 52.1%보다 33.2%p 높은 수치로, 광주·전남지역 주요 수원들인 나주호(72.5%), 장성호(84.1%), 담양호(80.8%), 광주호(86.6%)도 평년보다 높은 저수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전남본부는 모내기까지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 닥쳤던 유례없는 가뭄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정적 용수공급에 주력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본격적인 영농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 특성상 상시 용수 부족 문제가 우려되는 도서지역 및 준설이 필요한 저수지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용수 확보에 대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전남지역은 지난해 평년 대비 3배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농작물 습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배수가 필수적인 시설농가 지역에서는 배



담양호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수 시설 가동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영호 전남본부 본부장은 “최근 유례없는 이상 기후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용수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지역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친환경·에너지 창업기업 모집

### 29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신청

한국전력공사(한전)는 ‘2024년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친환경·에너지 분야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는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시스템반도체, AI·빅데이터 등 초격차 10대 분야를 지정하고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기술기반의 스타트업을 선발해 창업자금과 기술 개발(R&D)자금 및 기술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정부는 초격차 10대 분야의 스타트업 217개사를 선발해, 민관이 협력해 향후 3년 동안 약 2387억원의 사업화 및 R&D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정부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을 통해 오는 29일 오후 3시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특히 프로그램 내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경우 일 반공모(16개사)와 민간 및 부처추천(14개사) 등이 협력을 통해 10년 이내 스타트업 30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한전은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술사업화 주관 기관으로서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고도화 및 창업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며, 선발된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자금 및 5억원의 R&D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앞으로도 에너지생태계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 갈 유망 스타트업들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유망 스타트업을 글로벌 브랜드 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들의 편의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청렴은 고위직부터...한전KPS, 부서장급 공감교육

### 청렴 문화 구현 방안 논의

한전KPS는 최근 부서장급 핵심 고위직들을 대상으로 ‘청렴·윤리·내부통제 공감교육’을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은 이성규 한전KPS 상임감사 주재로, 각 부서의 차·실장들과 전국 사업장별 처장들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교육에서는 각 사업장별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 및 세부실천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규 상임감사는 교육에서 “한전KPS의 청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를 ‘청렴혁신 원년의

해’로 선포했다”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중간 관리자들이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실천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패취약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일부가 아닌 모든 임직원들이 함께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전KPS는 이성규 상임감사 취임 직후 설 명절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감사 주관 사업소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맞춤형 청렴정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aT, 동신대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 협약

### 농식품 미래 인재 양성 등 협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6일 나주시 대호동 동신대를 찾아 지역경제 발전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aT와 동신대는 향후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동참으로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등 ESG 실천 확산 ▲농수산물 미래인재 양성 및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 ▲지역경제 발전 협력 ▲농수산물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기술·정보 교류 ▲안전한 공공급식으로 학생건강 제고와 제반 산업 활성화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aT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뿐만 아니라 ‘저탄소 식생활’의 글로벌 확산에도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진 aT 사장은 “같은 지역 소재의 동신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저탄소 식생활’ 확산에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며 “동신대가 강조하는 실천의 가치를 바탕으로 일상 속 작은 실천 ‘저탄소 식생활’을 널리 전파해 지구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데 주



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T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탄소배출이 적은 식재료를 이용한 식단 구성 등을 통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aT는 지난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38개국 640여 기관과 협약을 맺고 ‘저탄소 식생활’에 앞장서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